

용기와 신앙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십대 소녀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매리 그레함은 14세쯤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던 매리 그레함의 집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의 회복을 알려 주는 소책자를 두고 갔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매리,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젊은이가 참된 복음을 전해주려 왔다고 나는 믿는다. 이 복음을 찾아 받아들이도록 해라."

매리의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그녀는 고아가 되었다. 그녀는 앨런이라는 부유한 집안의 하녀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물몬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는 화를 내며 교회에 가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웃 사람들은 당시 그 나라에서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은 물몬 교회에 대해 그 가족들이 동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앨런

가족은 함께 모여 매리를 불러 앉혔다. 그 집의 가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매리, 저기 문이 있다. 지금 바로 선택하거라. 물몬교를 포기하고 우리 집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밤 안으로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매리는 와락 울음을 터트렸다. 그 집에 그대로 있고 싶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지만,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복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없는 소녀는 일시링짜리 하나를 주머니에 넣은 채 밤중에 나와야 했다. 그녀는 그 돈을 부친의 친구에게 주었으며, 그는 그녀에게 방을 세내 주어 그 곳에서 장로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매리는 결국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했으며, 결혼하여 스코틀랜드에서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1872년 그들은 유타로 이민해 왔다. 그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앨런 가족이 그 곳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집으로 초대하여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었답니다."하고 그들은 말했다. 어린 매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참된 신앙을 포기하기 보다는 용감하게 그들의 집을 떠나 가자, 앨런 가족은 그녀의 종교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그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소녀로 알고 있었다. 앨런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몬교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연구하여, 교회에 들어왔으며, 유타로 이민하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십대의 소녀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블 대관장 소년단 최고상 수상



스페인서 미항공우주 김블 대관장(앞줄 가운데)이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운데) 및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우)으로부터 소년단 최고상 수상축하를 받고 있다.

김블 대관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봉사한 탁월한 공로"로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미국 소년단 본부의 제임즈 엘 타트 소년단 본부장으로부터 표창장과 함께 이 상을 수상했다.

11월에 십이사도 평의회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집행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미국 소년단 집행 위원회를 대신하여 김블 대관장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이 수여식에는 현재 미국 소년단 전국 평의회회의 일원이며, 집행 위원회의 임원을 역임한 십이사도 평의회회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과 대관장단을 대표한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그리고 김블 대관장의 부인 카밀라 이 김블 자매 등이 참관했다.

*

템플 스퀘어를 방문한 유엔 사절단 (31개국 대표)

화학 무기 분쇄에 대한 유엔 공동 연구회에 참석한 약 65명의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4일 교회 본부를 방문하여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했다.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의 일원인 이들은 투엘레 군사 기지를 방문하여 정부에서 독가스 무기를 없애는 것을 보기 위해 유타주까지 여행한 것이다.

그들 중에는 다수의 유엔 대사들이 있었으며 또한 제네바 위원회에 참석한 미국 대사인 루이스 지 필즈 이세도 포함되어 있었다.

십이사도 평의회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어셈블리 홀에서 사절단에게 간단히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국가 간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 중요한 연구회의 사절단이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세계 문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책임과 인간의 가치가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올겐 연주자 로버트 콘딕씨의 태버내를 올겐 연주를 들었고, 계보 도서판을 시찰했다.

계보과의 목록 편집자인 프레드 그레이엄은 계보 시설을 시찰하는 사절단을 인솔한 12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 브라질, 스페인, 베네주엘라 등지에서 온, 그가 인솔한 사절단들은 교회에서 수집하는 종교적인 목적에 관해 질문하고 그들이 알아낸 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사자 추모식 거행 (브리감 영 대학교)

한국 및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71명의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들을 추모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념패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디 행스 장로가 헌납하는 것을 보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 기념관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전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라고 행스 장로는 말했다. 이날은 11월 11일로 밖에는 늦은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장내를 메운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임이었다. “이 명예로운 기념관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자유의 제단에 바쳐 다른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회 군인 관계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행스 장로는 베트남에서 말일성도 군인들을 방문한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평화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무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사한 10명의 학생들과 베트남에서 전사한 61명의 학생들에 관해 말씀했다. “그들은 교회의 사명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이 자유의 나라와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스 장로는 또한 63명의 유족 대표들에게도 경의를 표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위안받을 수 있기를 간구했다.

행스 장로 외에도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제프리 알 홀란드 총장, 전사자의 딸인 조니 리틀러 자매, 한국 및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헤리 에이 웨쉬 형제, 전사자의 아들인 마태 엘 더핀 형제 등이 말씀을 했다. 모두 전사자들의 희생을 치하했으며, 참석자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도록 당부했다. *

벤슨 회장에게 경의를 포함

(유타주의 2개 단체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유타주의 두 단체가 농업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십이사도 평의회 of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솔트레이크시티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특별 연회석상에서 유타주 농장 연맹과 솔트레이크 지역 상공 회의소는 전 미합중국 농림 장관이었던 벤슨 회장의 업적에 대해 찬사를 드렸다.

벤슨 회장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초상화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미국의 농업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한 자를 위해” 데저레트 뉴스사 화가인 리드 맥그리거가 그린 이 초상화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있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농업 및 식량 연구소 건물의 벽에 걸어 두게 될 것이다.

농장 연맹 부회장인 시 부스 왈렌던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리의 원리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벤슨 회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자유 기업 체제를 위해 이바지한 그의 큰 공헌과 이 체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식량의 축복을 가져다 준 그의 큰 공로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

동 신학 연구원 태버나클 축제



11월 17일 축제 모습



동 신학 연구원 태버나클 축제 모습

지난해 11월 17~19일, 3일 동안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는 전통적인 태버나클 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의 많은 행사 중 특별히 "찬송가와 더불어—그 유래와 역사적 의의" "두 사람만이 참가하는 게임" "실내 운동회" 그리고 "탁구 대회" 등은 참여한 학생들의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또한, 마지막 날에 열린 가요제에서는 각 와드, 지부의 중창 팀이 출연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띤 경연을 벌이는 가운데 화양 와드팀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2등상은 지방에서 올라온 춘천·와드팀이 수상하였다.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10월 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중창 팀을 찬조 출연시켜 양교의 우의를 증진시켰다. *



11월 19일 축제 모습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지난해 11월 12, 13 양일에 걸쳐 서울 강서 스테이크의 83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의 감리로 노랑진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12일, 신권 지도자를 위한 신권 역원회에서 이 호남 장로는 신권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으로서 선교 사업, 성도를 온전케 함, 그리고 신권 사업 이외에 특별히 가정 복음의 강화와 조직의 완료를 말씀하였다.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총회에서는 3명의 대제사와 10명의 장로가 성임되었고, 스테이크 집행 시기에 김 우석 형제, 고동평의원에 박 내정 형제가 각각 부름받았다. 이날, 이 도환 스테이크 부장은 "진리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며, 만물의 본질이고 못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란 말씀을 하였다. 한편, 이 호남 장로는 니과 이일서 17장 41절의 "불뱀의 비유"를 예로 들며,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였다. *

송년 무도회 (영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는 박 재암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83년 12월 31일 영동 와드에서 송년 무도회를 가졌다. 김 철만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 참여한 60여 명의 독신 성인들은 정 경화 형제의 다채로운 게임과 손수 만든 음식으로 기쁨을 나누었으며, 나 정수 형제가 낭송한 송년시를 들으며 새로이 맞이하는 1984년이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

제2회 “이땅에 바운티풀을”

지난해 11월 19일, 전주 지방부의 이리 지부에서는 박 주인 전주 지방부장의 감리로 제2회 “이땅에 바운티풀을”이란 우정모임을 가졌다.

김 정대 형제와 조 영미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은 장 영식 이리 지부장의 말씀에 이어 합창단의 합창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에어로빅과 중창,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E.T 무용, 청남, 청녀 회원들의 패션 쇼, 김 광철 형제의 기타 독주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구원의 계획이란 연극과 지난 10월 6일 정주 사대에서 거행된 전국 중·고 무용 경연 대회의 고전 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 광용 형제의 고전 무용은 관중의 마음을 매료시켰다. *



김 광용 형제의 고전 무용 발표 모습

이리 지부 합창단의 모습



서울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 광경

1983년도 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해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지역 센터에서 서울 지역 대표인 이호남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26일(토) 오후에 시작된 신권 지도자 모임과 토요일 저녁 모임은 6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27일(일) 총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김 종열 부장, 박성진 감독, 박 기병 형제, 박 순종 서울 스테이크 축복사 그리고 이 호남 장로가 차례로 말씀하였고, 일요일 총회에서는 최옥환 스테이크 부장, 김 정숙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회장,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 김 종열 부장, 끝으로 이 호남 장로가 말씀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과 일요일 총회에서 말씀한 연사들은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과 복음이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명의 대체사와 2명의 칠십인 그리고 7명의 장로가 성임되었다. 참석 인원 500여 명. *

청녀회 창립 제114주년 기념 행사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해 11월 26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창립 제114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이 순석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은 200여 명의 청녀 회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성장하여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와드, 지부에서 준비한 중창, 부채춤, 리듬 체조, 풍뎉 그리고 연극 등을 발표하여 참석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

로드 쇼 경연 (서울 스테이크)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지역 센터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소속의 독신 성인들이 주최한 로드 쇼 경연 대회가 열렸다.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로 진행된 이번 경연 대회에서 연극 "마보울보"를 발표한 신당 와드가 최우수 상을 받았으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발표한 삼청 와드가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장려상은 혜화 와드와 농아 지부가 "사랑이 깃든 곳"과 "판토마임"을 발표하여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상으로는 구두쇠 영감 캐시의 역을 맡았던 삼청 와드의 유 원선 형제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